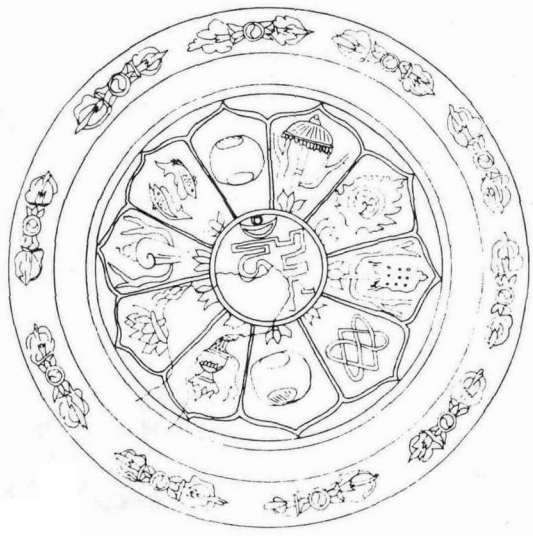


새기고 있을뿐 博物館 所藏 同種의 鏡과 같이 蓮瓣사이에 선을 새긴 것은 보이지 않는다.

거울의 전체面은 銀이 곱게 먹여져 있어 比較的 保管狀態가 良好한 편이며 군데군데 녹쓴 자죽이 남아있을 따름이다. 直徑 一一·五㎝

寧越發見 金銅如來立像

秦 弘 燮

一九六一年 八月頃 江原道 寧越郡 上東面 九來里에서 佛像 一軀가 發見된 것을 最近調査 할 수 있었다。 이 佛像의 發見動機는 家屋을 新築하고 整地作業中 地下 三尺에서 出土되었다하며 他遺物의 伴出關係나 其他 遺蹟에 對한 것은 全然 알 수 없다。 다만 發見地點에서 二㎞ 떨어진곳(方向不明)에 法興寺라는 寺刹이 있었다고 傳하며 따라서 그 洞里를 『법궁』 或은 『법호실』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佛像은 正面 直立한 像으로 아직 金色이 燦然히 남아있다。 머리는 螺髮이며 顔面은 正眼正視하고 兩頰이 매우 豊滿하다。 兩耳는 比較的 짧은 便이고 목에 三道가 없다。 法衣는 通肩하였고 通印한 두 팔목에 걸쳐 흘러내렸으며 特히 前面에서는 발목까지 내려와 衣端이 弧線을 그리고 있다。 그 兩側에는 따로 衣褶이 보이지 않으나 前面에만 若干 보이고 있다。 두 발은 正面을 向하였고 足下에는 左足에만 突起가 남아 있으나 原來는 右足下에도 있었던 모양이다。 頭後에는 孔穴이 있으니 光背를 附着했던 자리도 보이며 背面에는 上下 二個處에 구멍을 낸 자리가 있는데 腹背藏을 장치하고 막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全面에 金色이 남아 있으나 頭部와 衣文四部는 色이 脫落되고 靑銅色이 露出되고있다。 姿勢나 顔面이 整頓되었고 前面 下部의 衣文은 慶州 斗尺里 磨崖石佛 本尊像의 衣文과 恰似함을 느끼게한다。 勿論 新羅統一時代에 屬하는 佛像이지만 比較的 堅實한 솜씨를 보이고 있으며 特히 良好한 保存狀態로 收拾되었음은 多幸한 일이다。

全高 二一·五㎝ 頭高 四·五㎝

粉靑沙器繩簾文水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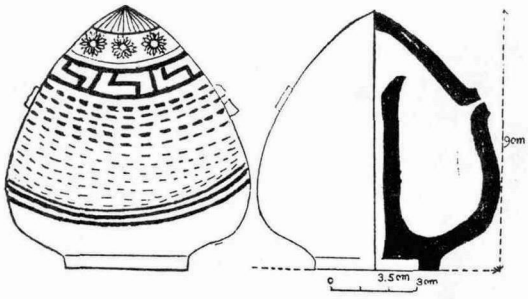
李 殷 昌

一九六二年五月에 論山郡 陽村面 新良里에서 同里居住 李廣洙氏가 發見한 粉靑沙器繩簾文水滴을 紹介해 두고자한다。

水滴은 高九㎝ 最大直徑八·五㎝ 굽다리의 直徑四·五㎝로 硯滴으로서는 比較的 큰便이며 形態는 揷圖에서 보는바와 같이 大略 圓錐形으로

되어있다。 굽다리의 中央底部에는 小圓孔이 뚫려서 圓管狀으로 器內에 貫通되어 있으며 側面에 注口가 있어서 器體를 기울여 물을 딸아 내도록 되어 있다。 이 注口는 缺失되어 있어 仔細히 알 수 없으나 元來는 어떠한 物體를 象形하였던 것으로 推測되며 이 注口의 反對되는 側面에 破損된 突起가 殘存해 있는데 아마도 이것은 注口와 相對되는 修飾인가 한다。 色胎土에 白象嵌을 했으며 灰青色의 透明釉藥이 씨워진 粉青沙器이며 器體의 施文手法이 비교적 精密한 便이라고 할 수 있다。 器底와 그 굽다리 周邊에는 施釉가 疎忽히 取扱됐지만 器體 上部로 이를수록 文樣이 아름답다。 器體 下半部에 三條白線帶가 들러 있고 그 위로는 繩簾文을 押捺하였고 다시 그 위에는 建築物의 勾欄에서 볼 수 있는 一種의 雷文帶(▭▭▭)를 둘렀으며, 그 위로도 押捺象嵌한 小菊輪 數個로 둘러 있고 上尖部에는 直線을 放射狀으로 장식하고있다。 이러한 類例로서는 일찍이 日人 野崎朝吉氏 藏으로 되어 있는 粉青沙器①水滴(所謂 刷毛目水滴)이 있으나 施文에 있어서는 器體의 上、中、下에 二條乃至 三條의 線文帶가 둘러 있을 뿐이다。 窯技나 施文 等으로 보아 鷄龍山窯②인가 하며 十五世紀乃至 十六世紀의 것으로 推定된다。

粉青沙器水滴實測圖



註 ① 一九二七年度古蹟調査報告(鷄龍山麓陶窯址調査報告) 圖版第七五 (二)刷毛目水滴

② 忠淸南道公州郡反浦面鶴峰里第一陶窯址——第六陶窯址

安東의 仁王石像①

黃 壽 永

邑內 太華洞 경덕中學校앞 高臺에는 雲臺寺②와 關王庙가 있어 羅代의 石物들이 散在하고 있다。 그 中에서도 曠感樓앞 左右의 岩上에 對立하고 있는 長方形板石二枚의 仁王立像은 注目할만 하다。

〔其一〕 向右의 一石으로서 高一m二四 幅五五cm 厚二七cm인데 一面에만 彫刻되었다。 仁王의 身高一m로서 圓形의 頭光과 蓮花臺座를 上下에 새겼다。 頭上에서 圓形結髮이 보이며 身部에는 頸環 腕足釧 等 莊嚴具가 있고 右手는 들어서 長大한 金剛杵를 들었고 左手는 垂下現掌하였다。 左足은 蓮花座를 밟았으며 右足은 들어서 무릎과 右腕이 接하고 있어 動作의 一瞬을 교묘하게 잡아서 잘 表現하였다。 天衣는 兩腕에 걸쳐 身部 兩側을 따라 曲線을 그렸으며 裳衣는 脚上에서 주름을 잡고 있다。 頭大短軀인데 筋骨의 사실的인 表現과 手足의 動的인 彫法은 此種 遺品中의 優作으로서 新羅統一期로 推定된다。

〔其二〕 向左의 兩面彫刻의 一石으로서 高一m一七 幅五十cm 厚三四cm인데 其一에 比하여 石質이 粗雜하며 磨損이 甚하다。 前面은 身高九十cm로서 蓮花座上의 立像인 바 頸飾이나 天衣 等의 表現은 其一과 거의 같다。 다만 右手는 주먹을 쥐어서 頭上에 들었고 左手는 垂下하였다。 背面像은 身高八四cm로서 單蓮座에 섰는데 樣式은 前面과 거의 同一하다。 〔其一〕의 高肉彫임에 比하여 低彫(특히 背面)되었는데 年代는 또한 新羅統一期로 推定된다。

以上 兩例는 모두 未詳의 他處에서 現位置로 移動되었으나 樓前의 守門將의 役割을 맡고있는 것은 오늘도 同一하다。 이들은 元來 佛敎造型으로서 塼塔의 龕室入口左右에 配置되었거나 〔其一〕 또는 그같은 築造物의 門扉 〔其二〕로 짐작된다。 安東地區에는 塼塔이 集中되고 있는 바 이